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5: Sermon Notes

Scripture: Titus 2:6-10

Date preached: February 6th 2022

Scripture: Titus 2:6-10

6 Likewise, exhort the young men to be sober-minded, 7 in all things showing yourself to be a pattern of good works; in doctrine *showing* integrity, reverence, incorruptibility, 8 sound speech that cannot be condemned, that one who is an opponent may be ashamed, having nothing evil to say of you.

9 Exhort bondservants to be obedient to their own masters, to be well pleasing in all *things*, not answering back, 10 not pilfering, but showing all good fidelity, that they may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all things.

6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절제하라고 권면하시오. 7 그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고 가르칠 때 순수함과 진지함과. 8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로 하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9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며

10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 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빚낼 것입니다.

Review

Last time we considered Paul's instructions to Titus on what to teach different people in the church. The church body comprises many different groups who join together and make one body. We see this evidenced in our own church. We are made up of men and women who represent a range of ages and backgrounds. Although we recognise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us we also acknowledge that there are many shared aspects of the Christian faith. We are all called for example to live holy lives and seek to follow and obey God's commands. After saying this we must also note that each group within the church has particular concerns or issues. It should be obvious that young women have different issues to older men. So Paul wrote instructions to Titus regarding how to instruct the different groups within the church. Last time we looked at his instructions for older men, older women and young women. Let us briefly review what Paul said about these particular groups.

Firstly Paul dealt with older or aged men. They of course, both in the ancient world and still today are often the leaders within the church. Therefore they should try to set a good example for others. They should live in a way that others can look up to and respect. To this end they need to be sober and serious in their attitude and outlook. They should be men who can think deeply and biblically on important matters. They also need to be able to control themselves so as to avoid extremes of action or emotion. Finally, they are called to be sound or healthy in their faith, love and patience. Paul turned next to address older women. Many of the things he said about older men also applied to them. They also needed to set a good example especially to the younger women. They should be self controlled, dignified and modest. Just like men they needed to be in full control over their drinking of alcohol. They should be careful not to let it have mastery over them. Of particular concern for older women was the danger of having a “wagging tongue.” Although at times it may be tempting, women should not indulge in gossip or the slandering of others. Finally, Paul spoke about the role older women have of teaching younger women. They should be ready, willing and able to teach the younger women in the church.

The final group we looked at last time was young women. As I said last time Paul was speaking primarily about young married women. Of key importance to them was that they did all they could to create loving households. They were to love both their husbands and their children. They were to be modest and discreet. They should think carefully about the way they dress, speak and behave. Paul also spoke about their important role as home-makers. God has blessed women with special capabilities to organise and manage the home.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cannot, or should not have jobs outside the home, but rather that their number one concern should always be the family and the home.

In today's passage Paul will briefly talk about younger men. He will then turn to address the conduct of the pastor. Finally, he will talk about servants or slaves.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해 바울이 디도에 준 지시를 고려했습니다. 교회의 몸은 함께 결합하고 한 몸을 이루는 여러 다른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대표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독교 신앙에는 많은 부분이 공유되고 있음도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이것을 말한 후에 우리는 또한 교회 내의 각 그룹이 특정한 관심사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젊은 여성은 나이든 남성과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내의 여러 그룹을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지시를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이 든 남성, 나이든 여성, 청녀에 대한 그의 지시를 살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특정한 집단에 대해 말한 것을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연로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고대 세계와 오늘날에도 종종 교회 내에서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그들의 태도와 관점에서 냉철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극단적인 행동이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건전하거나 건강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옆으로 돌아서 연로한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연로한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제하고 품위 있고 겸손해야 합니다.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술 마시는 것을 완전히 통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든 여성이 특히 염려하는 것은 “말을 혼드는 것”의 위험이었습니다. 때때로 유혹이 될 수 있지만,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중상에 탐닉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연로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본 그룹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말했듯이 바울은 주로 젊은 기혼 여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과 자녀를 모두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가사도우미로서 그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집 밖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거나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항상 가족과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이들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목사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몸을 돌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이나 노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6 Likewise, exhort the young men to be sober-minded,

Paul has addressed older men, older women and young women. He comes now to deal with younger men. This grouping would include men aged between approximately 20 and 40 years of age. Most significantly Titus himself would find himself included here.

Verse 6 begins with the word “likewise.” This is what we term a linking word, it links or connects two or more thoughts or ideas together. So what Paul is saying is that the things that applied to older men, older women and younger women equally apply to young men.

Paul tells Titus to instruct the young men to be **sober-minded**. This expression embraces a number of things. It tells us that young men need to be sensible, moderate and self controlled. Now if you were once a young man, or are a parent of a young man you know that young men can at times be wild. They can sometimes be foolish and reckless, doing and saying things in the spur of the moment that later they regret. So Titus is to instruct them of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self-control and self-restraint. It is a lesson that of course is still applicable today. Young men often have the desire to act in a certain way, but lack the wisdom or restraint to know that it is unwise. Certainly I know it to be true for my own life. I made some poor choices as a young man. So Titus is to teach and train the young men to be sober minded.

바울은 연로한 남성, 연로한 여성, 청년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 남자들을 다루기 위해 온다. 이 그룹에는 대략 20 세에서 40 세 사이의 남성이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Titus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6 절은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결 단어라고 부르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연결하거나 연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연로한 남자나 연로한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젊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이들에게 근신하라고 권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젊은이들은 분별 있고 온건하며 자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때 청년이었거나 청년의 부모라면 청년이 때때로 거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어리석고 무모하여 나중에 후회할 순간에 행동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절제와 절제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교훈입니다. 청년들은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지혜나 자제력이 부족합니다. 물론 나는 그것이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사실임을 압니다. 나는 젊었을 때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7 in all things showing yourself to be a pattern of good works; in doctrine *showing* integrity, reverence, incorruptibility,

You will notice here that Paul shifts his focus from the other groups in the church to hone in on Titus. Titus was a young man so it is natural that Paul include him in this group. He was however not just one of the young men in the church. He was a leader and figure of authority in the church . This meant that people looked up to him and modelled their behaviour on his. He wasn't going to be the permanent pastor on Crete but his example would set the model for how the church moved

forward. So Paul is reminding Titus that he needs to set a good example.

In my life as a school teacher I have always been aware the importance of setting a good example to my students. I want my students to have fun and enjoy the class but equally I want them to know that they are in class to study and learn. Part of my approach to setting a good example is centred on my appearance. I teach my classes wearing a shirt and tie. This visually conveys to the students that I have taken the time to look smart and am serious about what I am doing.

Another way that I go about setting a good example is by being professional and well prepared. I have planned out my lesson in advance. So I arrive in the class with my lesson plan, worksheets and other materials ready to go. I also make it a habit to arrive in class early. This allows me time to prepare and set things up. It means that no learning time is wasted. I have never explained these things in words to my students. But they have seen from observing my example what a professional approach to teaching looks like. Imagine by contrast if I were a different kind of teacher. What about if I was a teacher who came to class late, wearing an old T-shirt with uncombed hair. Imagine if I had no lesson plan prepared and no supplementary materials to support my learners. What kind of message would this subconsciously send to the students? The message it sends is simple; the teacher doesn't care, so why should we! This is Paul's point. If you want exemplary behaviour you have to show or model exemplary behaviour. So what does this entail for a church leader.

Firstly Titus is to show himself **to be a pattern of good works**. This simply means that Titus is to set the standard for behaviour. If people want to know how to behave or act in a certain situation they should look to the example of their pastor. This at least is the theory, in practice we know that pastors stumble and fall from time to time. We know that even though they may want to show people a holy way of living they cannot do so at all times. Paul then is not demanding perfection, but what he is saying is that a pastor loses credibility and impact if they are not seen to be setting a good example. Let me give you an example to explain my point.

There was a big debate recently in Christian circles regarding a very famous American pastor. This pastor is well respected and admired. He is known to be openly critical of prosperity preachers. It came to light recently that this pastor owned a number of expensive properties in California. He had used his income from book sales and invested it in big houses. Now let me emphasise that he had done nothing illegal, but it did cause people to ask questions. Some of the questions people asked were;

How could such a person preach against materialism and greed?

How could this man speak about helping the poor when he kept so much of his own money?

Why was he content to live in luxury when others in his church were in poverty?

The point is that whilst he had technically done nothing wrong the message it sent to the watching world was not positive. Paul is saying that we must be different to the world. This difference should be evident in the things we do.

The next very important thing to consider is what a pastor believes and teaches. He is to show that he teaches God's truth with **integrity, reverence, incorruptibility**.

A good pastor must know what he believes and why he believes it. He must teach the whole of God's truth with none of the world's ideas mixed in with it. He must teach the whole of God's truth with nothing taken from it. The ability to do this will only come as the result of committed study and meditation upon God's Word. Today many men training for the ministry are experts in church growth, or Christian counselling but not always in scripture. I remember as part of my ministry

training having to read and summarise in my own words every chapter in the bible. It was incredibly time consuming but of immeasurable value. Does this mean I know everything? Of course not, but if a pastor is not settled on what they believe and cannot defend their beliefs they should not be leading a church. This is why we need to apply God's standards and not man's to selecting elders in the church. What other things should concern a pastor?

여기에서 바울이 교회의 다른 그룹에서 디도를 연마하기 위해 초점을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도는 젊은이였으므로 바울이 이 그룹에 그를 포함시킨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교회의 젊은이들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지도자이자 권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행동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그레테의 영원한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모범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모델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학교 교사로서 살아오면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을 듣길 원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 교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좋은 본보기를 세우는 방법 중 일부는 외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셔츠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수업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내가 시간을 들여 똑똑해 보이고 진지하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내가 좋은 본보기를 세우는 또 다른 방법은 전문적이고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수업을 미리 계획했다. 그래서 저는 수업 계획, 워크시트 및 기타 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에 도착합니다. 나도 일찍 수업에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 내가 준비하고 설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습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모범을 관찰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보았습니다. 대조적으로 내가 다른 종류의 교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머리를 묶지 않은 낡은 티셔츠를 입고 늦게 수업에 온 선생님이라면? 내가 준비한 수업 계획이나 학습자를 지원하는 보충 자료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울의 요점입니다. 모범적인 행동을 하려면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거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디도는 자신을 선한 일의 본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Titus가 행동의 표준을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목사님의 모범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론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목회자들이 때때로 넘어지고 넘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싶어도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좋은 본보기로 보이지 않으면 신뢰와 영향력을 잃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 목사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존경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번영 설교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목사가 캘리포니아에서 값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책 판매로 벌어들인 수입을 큰 집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그가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질주의와 탐욕을 거슬러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왜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가난할 때 사치스럽게 사는 데 만족했을까요? 요점은 그가 기술적으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지켜보는 세계에 보낸

메시지는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목사가 무엇을 믿고 가르치는가입니다. 그는 그가 성실과 경건과 썩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좋은 목사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생각도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아무것도 빠지 않고 전체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적인 연구와 묵상의 결과로 올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을 위해 훈련하는 많은 남자들은 교회 성장이나 기독교 상담의 전문가이지만 항상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사역 훈련의 일부로 성경의 모든 장을 읽고 요약해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측량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지만 목회자가 자신의 신념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없다면 교회를 이끌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교회의 장로 선발에 적용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8 sound speech that cannot be condemned, that one who is an opponent may be ashamed, having nothing evil to say of you.

Being a pastor is unlike most jobs or occupations. Most workers start and finish their work at a set time. When they leave their place of work they can change their work clothes or uniform and are free from work commitments. A pastor does not have this luxury. I am sure that you appreciate that a pastor does not only work on a Sunday. He lives the life of his calling both in and out of the pulpit 24/7. He is never off duty.

Someone might call or need pastoral help at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If someone falls ill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wants the pastor's support or prayer he is duty bound to go. He cannot say that this call for help has not come during "working hours." These demands make a pastor's life challenging. Also we need to consider the scrutiny that pastors and other church leaders live under.

Pastors and church leaders live under far more intense scrutiny than regular people. People are watching them very closely. Imagine if you overheard a pastor talking badly about someone. Even worse imagine you saw a local pastor arguing or fighting with someone. Imagine if you saw your pastor staggering out of a bar holding a bottle of soju. You would I'm sure be greatly shocked. You would be far more shocked than if it was a regular church member. You would rightly think that the pastor was bringing the church a bad name and shaming their calling.

This is what Paul is telling Titus. A pastor must conduct themselves in a way that no one can condemn or accuse them of something. There should be no case for a pastor to answer if accused. This means that in practice the pastors words must always be sound and spiritually helpful. They must choose their words carefully in order to build up and encourage. They must be aware that the world is looking for ways to bring down the pastor and destroy his ministry. This means that a pastor or church leaders job is not easy.

Finally in this section Paul will provide instruction for the conduct and behaviour of servants.

목사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직업이나 직업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끝냅니다. 그들은 직장을 떠날 때 작업복이나 유니폼을 갈아입을 수 있고 업무 약속에서 자유롭습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사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주일에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는 강단 안팎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부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근무 중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밤낮으로 전화를 하거나 목회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아파서 목사님의 지원이나 기도를 원하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이 도움 요청이 "근무 시간"에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목회자의 삶을 도전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우리는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면밀한 조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감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매우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누군가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 나쁜 것은 지역 목사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술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반 교인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목사가 교회에 나쁜 이름을 붙이고 그들의 소명을 부끄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아무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고발을 당하면 대답할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목사의 말은 항상 건전하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세워 주고 격려하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목사를 몰락시키고 그의 사역을 파괴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 일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종의 행동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9 Exhort bondservants to be obedient to their own masters, to be well pleasing in all things, not answering back, 10 not pilfering, but showing all good fidelity, that they may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all things.

The final group that Paul instructs are **bondservants**. This is the Greek word *doulos*. It refers to a servant, slave, maid or an attendant. Paul is sometimes criticised for not openly condemning the practice of slavery. People say that Paul ought to just plainly state that slavery is wrong. Many feel very strongly about this, so I want to make a few comments about slavery. It is my opinion that Paul believed that slavery was wrong. He regarded it as incompatible with a Christian world-view and desired its practice to end.

He saw the gospel message as the strongest, most effective means to do this. The church was revolutionary in that it made no distinctions between believers. Slave and master could, and did worship together. And a slave could even become an elder or leader within the church and have spiritual authority over their master.

However we must acknowledge that the practice of slavery in Paul's day was deeply rooted in everyday life. In fact ancient societies were built and maintained upon the culture of slavery. I have read figures that claim to 75-90% of people in the Roman empire were slaves. Therefore it was not something that could quickly or easily be dismantled. So although Paul wanted the practice of slavery to end he is dealing in his letter to Titus with people in the here and now. Therefore he is giving slaves advice so that they can live in a culture that accepted slavery in a way that pleased God.

The first thing he tells them is that they are to be **obedient to their own masters**. They are to try to follow their instructions and seek to please or satisfy them in all they do. We should note here that their obedience is only to their master. They are not subject to others. Now we know especially if we have teenage children that there is willing obedience and begrudging obedience. We can at times do the right thing but with the wrong heart motivation. I am sure that there were many mean and cruel slave masters. However even though it may be difficult especially if the master was unkind a slave should try to please them. This is because doing so pleased God. We should note that if a master was a Christian then they too were called to a higher standard. They certainly should not have been mistreating their servants.

Slaves were also called not to **answer back** to their masters. This at times must have been a great temptation for servants. In many cases because of past experience they would know the job better than the master and would resent their input. They may well have felt their boss was unreasonable or expected too much. There would also be the strong desire to talk badly about a poor master when meeting with other slaves or when the master had gone away. However giving into these desires reflected poorly on a slaves Christian witness.

Also they should not **pilfer** or steal from the master. Sadly, but perhaps not surprisingly stealing was very common. It was so common that at times the words for thief and slave were used interchangeably.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for slaves to steal. They could steal items from the house and claim they had been lost. They could take a cut from the food stores. They could also cheat the master when it came to the buying and selling of goods. Whatever form the stealing took it was wrong. Even though slaves were not free, and may be poorly treated this gave them no right to act in this way.

There was a very good reason why slaves should be obedient, trustworthy, respectful and honest. It was because when they acted like this it glorified God. What Paul is saying here is that by behaving in this good way we are laying out the precious things of God so that all the world can see and admire them. We see a similar thing today when for example we visit a hotel. If the people working in the hotel are dressed smartly, are courteous and welcoming and give us good service we think it reflects well on the owner of the hotel.

There is certainly a lesson for us all to learn here. When we are great employees who serve honourably and faithfully we are showing people the wonderful things of God. We are making the truths of God appealing to non-believers.

바울이 지시하는 마지막 무리는 종들입니다. 이것은 헬라어 둘로스입니다. 하인, 종, 하녀 또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때때로 노예 제도를 공개적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매우 강하게 느끼므로 노예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노예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관행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는 복음 메시지가 이것을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종과 주인은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종은 교회 내에서 장로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주인에 대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시대의 노예 제도가 일상 생활에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고대 사회는 노예 문화를 기반으로 건설되고 유지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제국 인구의 75-90%가 노예였다고 주장하는 수치를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빨리,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 제도가 끝나기를 원했지만 그는 디도에 보내 편지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노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노예를 받아들이는 문화에서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시를 따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주인에게만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특히 십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발적 순종과 마지못해 순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옳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비열하고 잔인한 노예 주인이 많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특히 주인이 불친절한 경우에는 어려울지라도 종은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도 더 높은 표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확실히 그들의 종들을 확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노예들도 주인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종들에게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과거 경험 때문에 그들은 주인보다 그 일을 더 잘 알고 그들의 의견을 분개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사가 비합리적이거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노예를 만나거나 주인이 갔을 때 가난한 주인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 굴복하는 것은 노예 기독교인의 증거에 좋지 않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에게서 물건을 훔치거나 훔쳐서도 안 됩니다. 슬프게도 훔치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적과 노예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도둑질할 기회는 많았다. 그들은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분실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식품 가게에서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물건을 사고 팔 때 주인을 속일 수 있습니다. 도둑질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노예는 자유롭지 못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권리는 없습니다. 노예들이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하고, 정직해야 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을 이와 같이 행함으로 온 세상이 보고 감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우리는 호텔을 방문할 때 비슷한 것을 봅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정중하고 친절하며 우리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호텔 주인에게 잘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훌륭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훌륭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호소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regarding today's passage.

The importance of our good example

Even though I have lived in Korea for many years I always keep up to date with things back in the UK. These days there seems to be great dissatisfaction with government leaders and politicians. In particular many people accuse them of being hypocrites. For example let me tell you about the UK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As you know COP 26 took place in Glasgow in October and November of 2021. World leaders and climate experts flew in from around the world to talk about global climate change. Boris Johnson spoke of the need to reduce our use of fossil fuels. He spoke about the sacrifices we would all need to make. Following his speech he got on a private jet to fly 500 km back to London. In other words we the people needed to make sacrifices, but they didn't apply to him. He is the living definition of a hypocrite.

Paul told Titus that as a Christian leader he must never be a hypocrite. He must never say one thing but then do another. As a leader he must model an example that others could follow. Paul's message equally applies to all of us. In whatever place God has put us we must model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We do this not for our own glory but so that others look beyond us and glorify God.

우리의 좋은 모범의 중요성

한국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영국에 있는 것들에 대해 최신 정보를 얻습니다. 요즘 정부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COP 26은 2021년 10월과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지도자들

과 기후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Boris Johnson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 그는 전용기를 타고 런던까지 500km를 비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백성들은 희생이 필요했지만 그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선자의 살아있는 정의입니다. 바울은 디도에 대해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결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가지 말만 하고 나서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로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The rules apply to us

Although some may disagree employees today are not slaves. We may not like our jobs, we may feel as if we are poorly treated, but we are free to leave if we wish. A slave was not free to come and go as they pleased. But what Paul tells slaves still applies to us today. We are to work hard and obey orders. We should be polite and respectful. We should not answer back or talk badly about our bosses behind their backs. We also should not steal from them.

Just as in the ancient world this goes on all the time. Sometimes it is things that are small or minor in size. People stealing stationery supplies, or small items from the workplace. Perhaps it's the stealing of time. Taking a long lunch break or coming to work late. It may be more serious; fiddling the books or altering the accounts. Whatever it may be it is wrong and dishonouring to God. Even if it is commonplace, and everyone else is doing it we are called to a higher standard. We are called to represent and reflect the Lord Jesus Christ. We are to shine His precious example to the world so that others are drawn to Him. Let us then all attempt to be the best employees we can.

우리에게 적용되는 규칙

일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날 직원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노예는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종들에게 말한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 바르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우리 상사에 대해 대답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서 흠쳐서도 안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항상 진행됩니다. 때로는 크기가 작거나 사소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문구류나 작은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시간을 훔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길거나 늦게 출근한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만지작거리거나 계정을 변경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릇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높은 표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반영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이끌릴 수 있도록 그분의 귀중한 모본을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